

“올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꼭 제창해야”

공식기념곡 지정·역사 왜곡 처벌 조항 신설 촉구

5·18역사왜곡대책위, 靑 3자 회동서 논의 요청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오는 5월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서는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제창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지역 33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대책위(대책위)’는 16일 국회 역사 대표실 등을 방문해 ‘임을 위

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과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선 대책위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공식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대책위는 특히 1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첫 3자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여부가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에게 요청하기로 해 문 대표 등의 건의 여부와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달 14일 국립 5·18민주묘역을 참배하면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5·18기념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책위는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다시 한번 요청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난 2013년 6월 27일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7월 1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기념곡 지정 절차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5·18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도 촉구할 방침이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및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공화국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 요청 등이다.

이번 대책위 방문단은 김영진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김후식 5·18민주운동부상자회장, 이명자 오월어머니집관장, 안성래 일암인권작은도서관장, 방철호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이경률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등도 청와대 등을 접촉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일지

1983~2008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2009~2010	식전행사로 합창단 공연
2011	합창단 합창
2012	무용단 공연시 자율적 제창
2013~2014	합창단 합창시 자율적 제창

■ 5·18 기념곡 지정 추진현황

2013.4	국가보훈처, ‘오월의 노래’ 별도 제정 시도
	‘5·18 공식 기념곡 추진 대책위원회’ 구성
2013.5	대책위, 공식 기념곡 지정 성명서 발표 및 국회·청와대 방문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로 확대 구성
2014.3	국회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기념곡 지정 촉구
	광주시의회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재추구 결의안 채택
2014.4	공식 기념곡 지정 재추구 결의안 채택

전남도 공무원 올해 1317명 채용 ‘사상 최대’

16~20일 원서 접수

전남도가 올해 1317명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당초 1203명에서 114명이 늘어났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전남도는 15일 “오는 6월27일 치러지는 제2회 전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3월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

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임용시험 계획은 전라남도 누리집 ‘시험정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제2회 임용시험에서는 9급 일반행정 530명 등 당초 910명에서 99명이 추가된 100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대부분 자격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 다만 일반행정 외국어능력자와 특수직렬인 간호·보건진료·전산·사서·속기·지적 직류는 관련 분야 자격·면허를 소지

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또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에 거주하고 있거나 2015년 1월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전남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하다.

제1회 임용시험은 지난 14일 실시됐으며, 제2회는 6월27일, 3회는 8월8일, 4회는 10월17일 치러진다. 3회에서는 126명에서 11명이 늘어난 137명, 4회에서는 94명에서 4명 증가한 9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경호 전남도 총무과장은 “올해 복지 수요의 증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9일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2015년도 임용시험계획을 공고하고 선발 예정 인원을 당초 1203명에서 1317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ol@kwangju.co.kr

봄꽃, 30년 전보다 보름 빨리 핀다

지구온난화에 높은 기온 영향

지구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봄꽃이 피는 시기도 30년 전보다 최대 보름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상청이 1981년 이후 주요 도시의 봄꽃 개화시기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15일 기상청이 1981년 이후 주요 도시의 봄꽃 개화시기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1980년대 4월 20일에 꽃망울을 터뜨렸던 개화는 1990년대는 3월 28일, 2000년대는 3월 26일에 개화했다. 2010년대(2011~2014년)에는 다소 늦어진 4월 5일 꽃을 피웠지만 1980년대에 비해 개화 시기가 15일 앞당겨졌다.

꽃망울 개화 시기는 1980년대 4월 12일, 1990년대 4월 10일, 2000년대 4월 7일, 2010년대 4월 10일로 집계됐다. 개나리는 연대별로 각각 3월 30일, 3월 29일, 3

월 27일, 3월 28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한반도 전역에서 확인됐다. 대전에서 1980년대 4월 14일 개화했던 개화는 1990년대에 4월 6일, 2000년대에는 3월 25일, 2010년대에는 4월 4일에 꽃망울을 터뜨렸다. 부산은 198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개화는 5일, 벚꽃은 3일, 개나리는 4일 일찍 피었다.

이처럼 봄꽃이 서늘해진 이유는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조시간과 강수량, 개화 직전의 날씨 변화 등에 따라 그 시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국내 10대 도시의 2월 평균기온은 1980년대 1.2도에서 2000년대 3.0도로 1.8도나 높아졌다. 3월 역시 같은 기간 6.2도에서 7.2도로 1.0도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 3·15 의거’ 55년

호남 4·19혁명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영용)는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에서 제55회 광주 3·15의거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제55주년 3·15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가 3·15의거의 진원지임을 알리고 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불의에 항거한 자유·민주·정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박주선·장병완·임내현 국회의원과 유인학 세계거서 문화협회 총재, 이기후 김규식 박사 기념사업회장, 기태엽 공명선거 실천연합 대표, 고영신 4·19국가조찬기도회 지도목사를 비롯한 광주 3·15의거 주역들과 4·19 회원, 시민사회단체·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경과보고와 3·15 배경 및 의의 설명에 이어 4·19 국가유공자의 상환 설명, 대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는 15일 오전 광주 금남로 2가에서 ‘제55회 광주 3·15의거 기념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광주 3·15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특히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3·15 부정선거 첫 규탄인 ‘광주 3·15 의거’ ‘국(國) 민주주의의 장승 데모’를 마산의 3·15 의거와 같은 격의 예우 대상이 되도록 관

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광주의 3·15 부정선거 항의시위가 마산보다 3시간 앞서 일어났는데도 마산만을 독자적인 3·15 의거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고, 정부주관 3·15 의거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앞장 선 지역차별이고, 지역갈등 조장”이라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

리퍼트 주미대사 이번 주 업무 복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이번 주에 업무 복귀한다.

리퍼트 대사는 1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우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됐다”면서 “다음 주 중에 업무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글 하단에는 사람들이 보낸 꽃다발과 화분 등을 배경으로 아내와 아들, 예견 그릭스비와 함께 찍은 사진 2장을 올렸다. 이에 주한 미국대사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리퍼트 대사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에는 예견을

데리고 경찰 경호를 받으며 청와대 인근을 산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을 알아본 시민들의 환호에 “안녕하세요”라며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민화협 초청 행사에서 김기종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왼손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本 社 人 事

▲高勳錫·전북취재본부 고창주재 차장 (3월 16일자)

1636 결과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년 10월 15일 “빛 김서연” 양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클리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및 인원

지 역	영 광
인 원	0 명

■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2015년 3월 17일(화)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 기타사항은 ☎(062)220-0678 문의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光州日報社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사 파견 업무**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국 문외사촌 자재한 안테나를 우송하여 드립니다.